

OECD 국가의 재정과 복지 현황

- 남유럽의 국가재정위기로 부터 촉발된 복지 지출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여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높은 복지 지출은 국가채무의 증가와 상관관계는 높으나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는 경우 복지 지출은 국가채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따라서 복지 지출 수준의 억제에 정책적 관심을 쏟기보다는 복지 지출이 어떻게 사용되도록 할 것인가, 어떠한 효과를 낼도록 사용할 것인가에 주목해야함

[분석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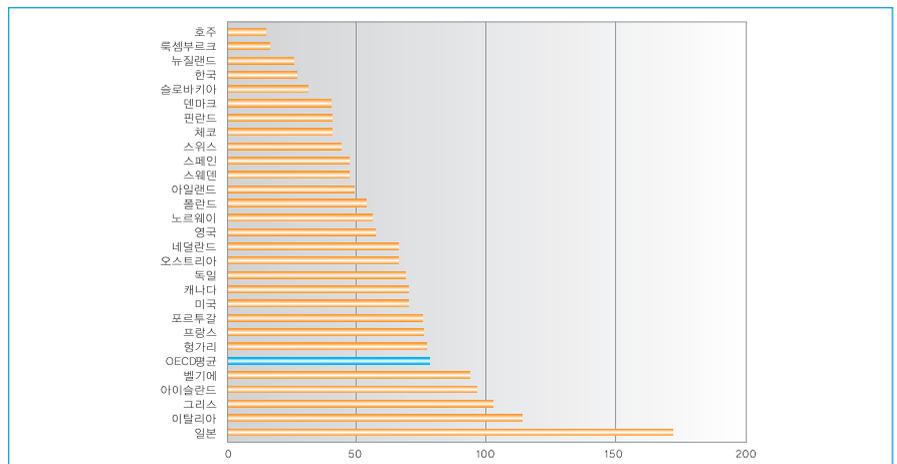
변수명	의미	년도	출처
국가채무비율(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 as a percentage of GDP)	정부의 총 금융채무 / GDP	1990-2008	OECD
1인당 GDP(GDP per capita)	US dollars, current prices and PPPs	1960-2008	OECD
경상수지비율(Current account balance as a percentage of GDP)	경상수지 / GDP	1990-2008	OECD
경제성장률(Real GDP growth)	실질 GDP 성장률	1959-2008	OECD
고용률(Employment rates)	15-64세 인구 중 취업자 수	1966-2008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율(Public social expenditure)	일반지출 + 사회보험지출 / GDP	1980-2007	OECD
실업률(Unemployment rate)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수	1995-2008	OECD
빈곤율(Relative Poverty Rates)	가처분소득 기준, 중위 50%	1967-2006	LIS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소득: 가처분소득 기준	1967-2006	LIS
노인인구비율(Elderly population of total population)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1950-2050	OECD

1. OECD 국가의 재정 및 복지 현황

□ 국가채무

- 2008년 현재 국가채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나라는 일본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72.1%로 OECD 평균 78.4%보다 2배 이상의 채무비율을 보이고 있음. 이탈리아(114.4%)와 그리스(102.6%), 아이슬란드(96.3%), 벨기에(93.5%)가 일본의 뒤를 잇고 있으며, 남유럽 재정위기에 속하는 포르투갈이 헝가리, 프랑스 등의 국가들과 유사한 국가채무 수준(약 70%)을 보이고 있음

[그림 1] OECD 국가의 국가채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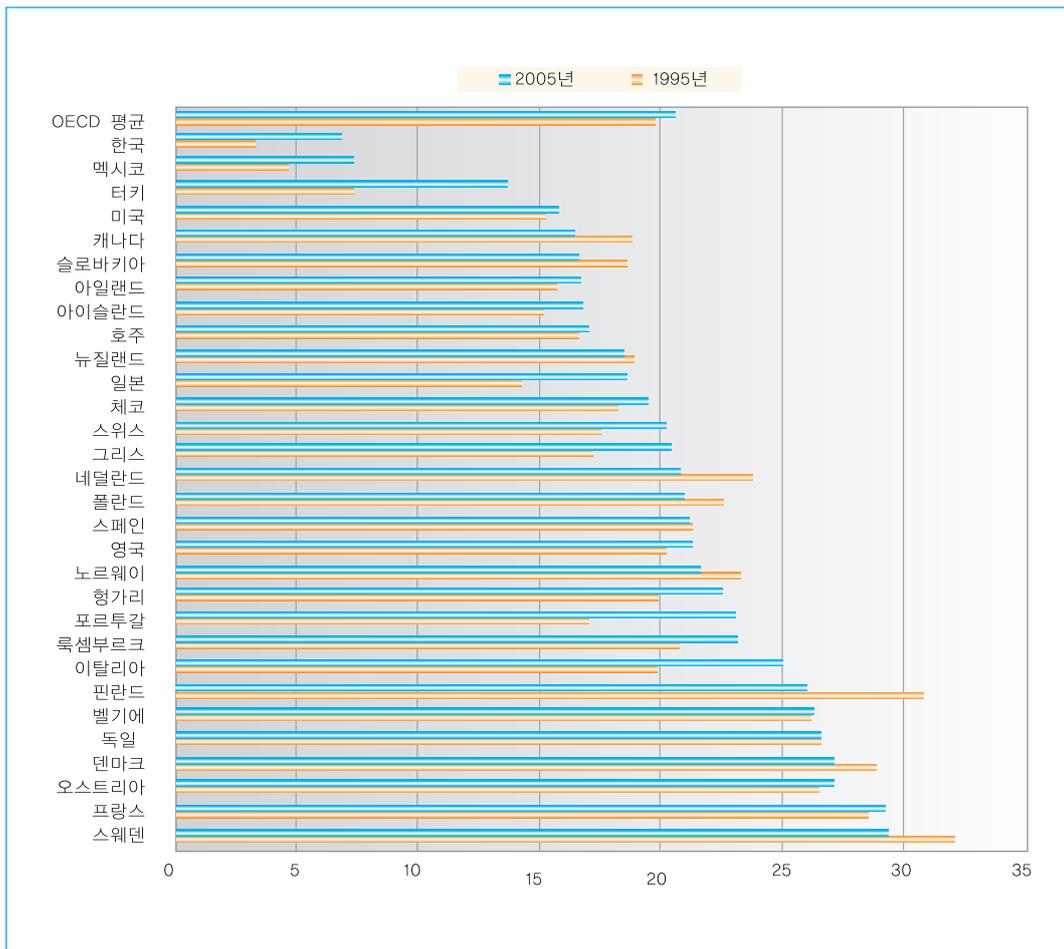
주: GDP 대비 비율은 2008년 기준이며, 터키와 멕시코는 보고되지 않음

자료: OECD Factbook 2010

□ 공공사회복지지출

- 우리나라의 총사회복지지출 수준은 2005년 9.4%로 OECD 평균 23.5%의 40%에 불과한 수준임. 스웨덴과 덴마크 등과 같은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사회복지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미국은 전체 사회복지지출에서 민간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로 이슈가 되었던 PIGS 국가는 2005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OECD 평균과 유사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국가들로서, 이들 국가들은 OECD 평균 이상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보이나 이번 재정위기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들과 비교해 1990년에 비해 공공사회복지지출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였다는 특징을 보임

[그림 2]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1995-200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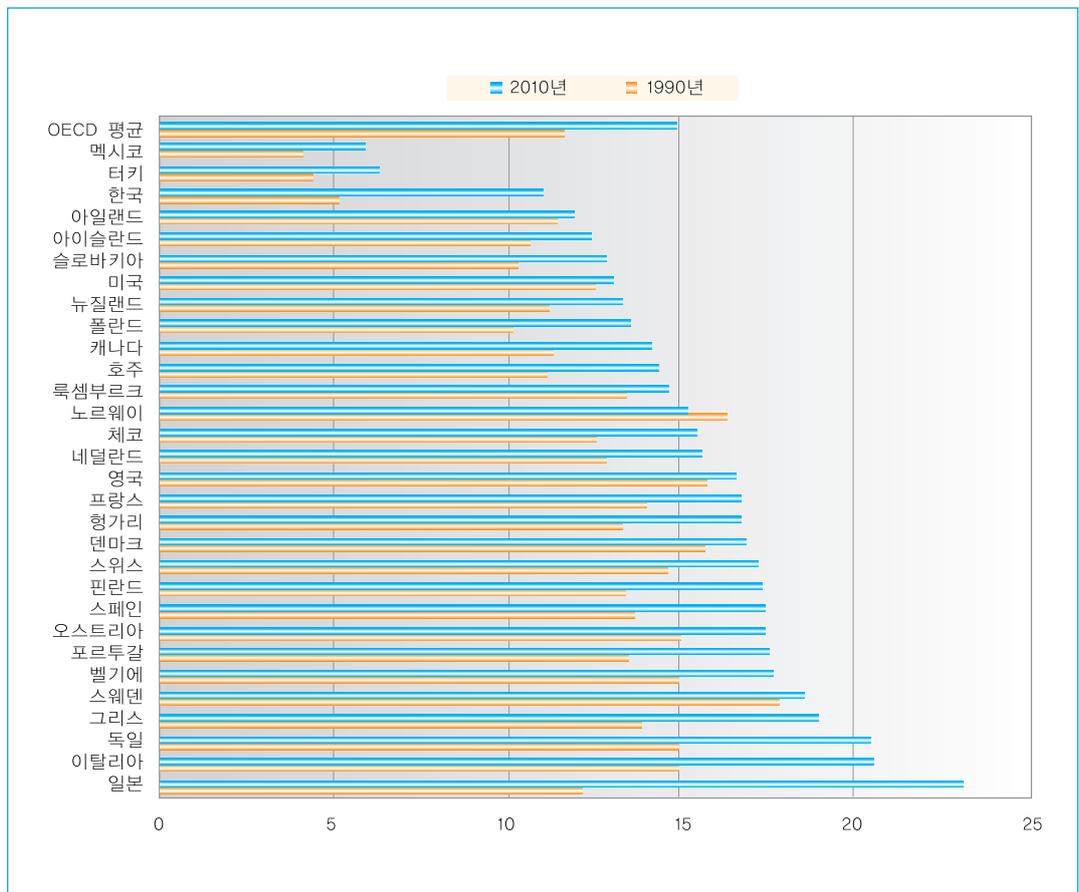


주: 자료의 한계로 헝가리는 2000년과 2005년, 포르투갈은 1995년 2004년 비교수치임

□ 노인인구비율

- 인구고령화는 보건 및 기타 노인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을 증가시켜 복지국가의 재정 상황을 불안하게 하는 복지국가의 위협요소로 제시되고 있음. 또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가져와 노인인구에 대한 부양비용 증대라는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음
- 2010년 현재 일본의 고령인구비율은 23.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이탈리아와 독일이 각각 20.5%, 20.4%로 그 뒤를 따르고 있음. OECD 평균은 14.8%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이 17% 이상으로 다소 높은 고령인구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최근 재정위기 상황을 맞은 PIGS 국가의 고령인구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령화가 복지국가의 재정 상황을 압박하는 요인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동시에 스웨덴, 핀란드 등이 이들 국가들 수준의 고령인구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고령화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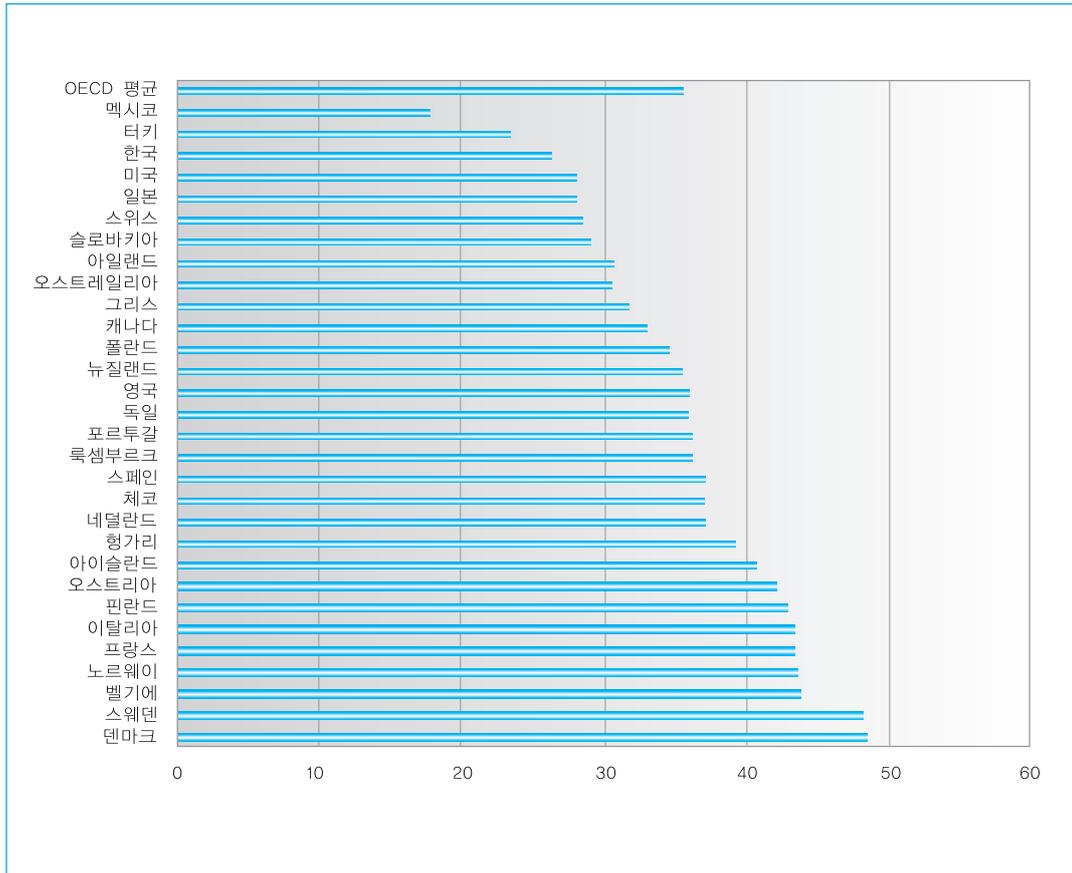
[그림 3] OECD 국가의 고령인구비율 추이



□ 국민부담률

- 보다 높은 삶의 수준,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서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고, 조세부담의 증가를 피할 수는 없음. 한 국가의 징세를 통한 재정능력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중요함
- 2007년 현재 국민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8.7%)이며, 그 다음은 스웨덴(48.3%), 벨기에(43.9%), 이탈리아(43.5%), 프랑스(43.5%) 순임. OECD 평균 35.8%에 견주어 미국, 캐나다, 스위스, 그리스 등이 평균보다 낮고,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21.1%), 두 번째로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26.9%)임
- 이번 재정위기를 겪은 PIGS 국가의 국민부담률은 OECD 평균수준 및 그 이하수준으로 나타남

[그림 4] 국민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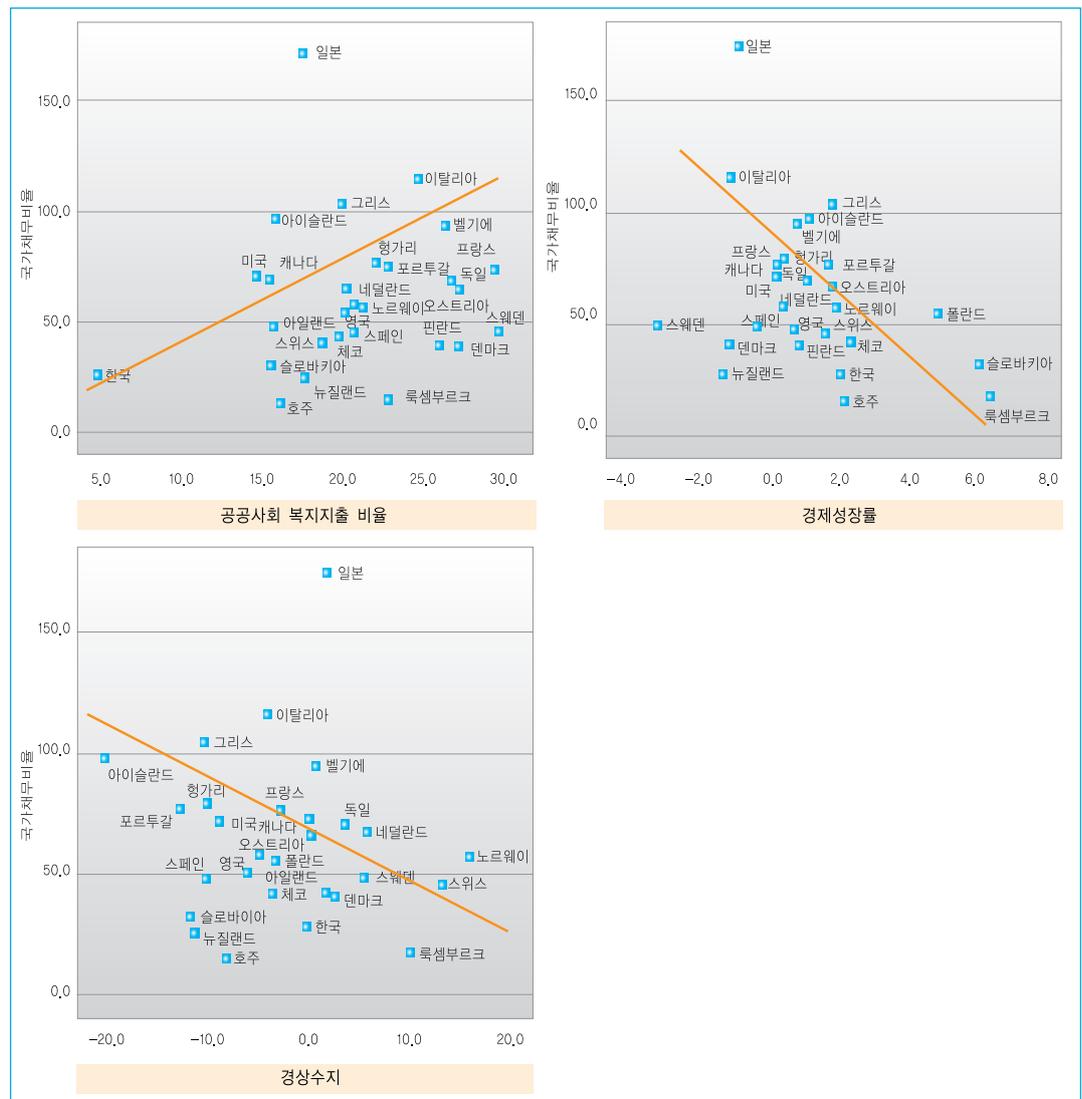
주: 2007년도 기준

2. OECD 국가의 국가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재정위기 원인

□ 남부유럽 복지재정위기는 재정적자의 심화와 국가부채 규모의 증가를 지적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26.8%로 OECD 30개국 중 비교적 낮은 수준에 있으나,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인한 재정부담의 증가, 국공채에 대한 외국인 투자 비율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존재함

○ 국가채무비율 변수 및 다른 변수들 간의 변동 크기의 정도와 방향을 살펴본 결과, 공공 사회복지지출과 국가채무비율과는 양의 상관관계($r=.355$, $sig.=.05$)가 나타났으며, 경상 성장률과 국가채무비율과는 음의 상관관계($r=-.163$, $sig.=.05$)가 나타났음. 반면에 경상수지 변수는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5] 국가채무와 국가재정위기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산점도



□ 국가채무(GFL)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한 결과,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PEX) 변수만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R^2 결정계수는 84.7%, F값은 51.635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방정식〉

$$GFL = 1.705^{**} \times PEX - 1.047^{**} \times RGDPG - 0.631^{**} \times CA$$

(11.248) (-3.562) (-3.252)

주: 국가채무(GFL),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PEX), 경제성장률(RGDPG), 경상수지(CAB),

1) *p<0,05, **p<0,01, ***p<0,001

2)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나면 국가채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제성장률이 저조하고, 경상수지가 적자일 경우 공공사회복지지출이 증가한다고 추정할 수 있음

3. OECD 국가의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재정위기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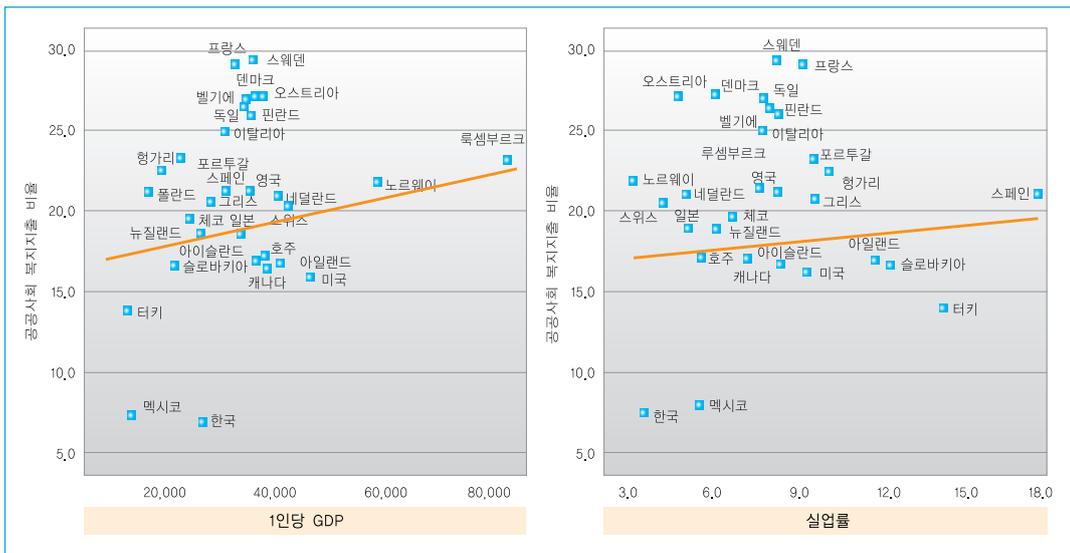
□ 우리나라 사회 복지지출의 GDP 대비 비중 10.95% 가운데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8.3%로 OECD 국가 중 7.6%의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OECD 평균 23.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율임

- 독일, 프랑스, 스웨덴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30%에 달하며,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높은 스웨덴, 독일 등은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 정도와 빈곤율이 낮음
 - OECD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의 평균비율은 약 10.4%이며, 미국, 멕시코, 터키 등의 빈곤율은 17%를 상회하는 반면, 복지제도가 발전한 덴마크와 스웨덴의 빈곤율은 6%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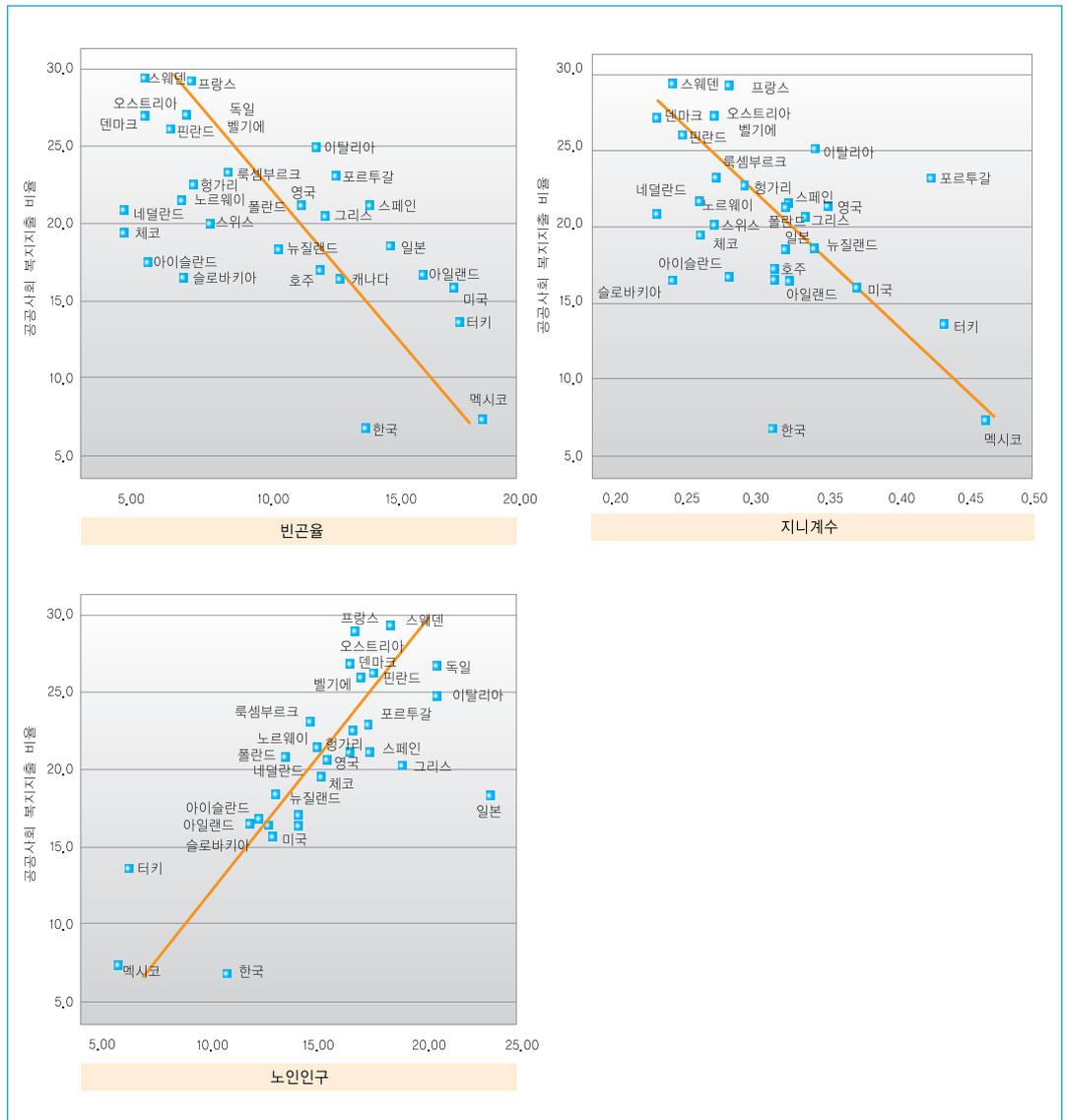
□ 공공사회복지지출 변수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공공사회복지지출이 높을수록 빈곤율이 낮은 음의 상관관계(r= -.758, sig.=.01)를 보이고 있고 특히, 노인인구비율은 공공사회복지지출률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r=.786, sig.=.01)를 보임

- 이는 고령화율이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의 가장 큰 기여요인임을 알 수 있음

[그림 6] 복지지출과 국가재정위기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산점도



[그림 6] 복지지출과 국가재정위기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산점도(계속)



□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1인당 GDP, 실업률, 빈곤율, 지니계수, 노인인구 비율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본 회귀식의 설명력인 R^2 결정계수는 84.8%이며, F값은 65.997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방정식 >

$$PEX = 9,030^* \times PGDP + 0,215^{**} \times Unemp - 0,317^{**} \times POV + 33,534^{**} \times GINI + 1,240^{**} \times EP$$

(1,519) (2,359) (-1,639) (2,262) (8,334)

주: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PEX), 1인당 GDP(PGDP), 실업률(Unemp), 빈곤율(POV), 지니계수(GINI), 노인인구비율(EP)

1) *p<0,05, **p<0,01, ***p<0,001

2)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함

- 경제발전수준(1인당 GDP)이 높을수록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높으며, 복지수요 증가에 기여하는 고령화율과 실업률이 높을수록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높아짐
 - 빈곤율이 낮을수록 공공사회복지지출은 높아지는 것으로, 이는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많이 투입하면 그 사회의 빈곤율이 낮게 관리된다는 것을 의미함
 - 불평등지수는 여러 요인을 통제할 때, 불평등지수가 높을수록 공공사회복지지출이 함께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단순상관관계 결과와 상이하지만, 이러한 정의 상관관계는 빈곤율의 영향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제한적 해석이 가능함
 - 본 모형에서 빈곤율은 복지지출의 선별적 표적화에 기여하는 정도를 볼 수 있고, 불평등지수는 복지지출의 보다 광범위한 계층격차 축소에 기여하는 점을 본다는 점에서 함께 투입하였음

4. 한국의 복지체제 발전을 위한 함의

- 남유럽의 국가재정위기로부터 촉발된 복지지출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실증적 자료에 기반하여 OECD 국가들의 경험을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복지지출과 국가재정위기 간의 관계가 단순한 상관관계로 설명될 수 없음을 밝힐 수 있었음
 - 높은 복지지출은 국가채무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높지만,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는 경우 복지지출은 국가채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 사회의 발전경로를 선택함에 있어 몇 가지 함의를 찾을 수 있음
 - 첫째, 복지지출의 높고 낮음 그 자체가 국가재정 위기로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 둘째, 복지지출의 귀착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 즉, 복지지출이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면 복지지출이 높아도 국가재정위기는 초래되지 않음
 - 셋째, 고용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
- 따라서 복지지출 수준 그 자체보다는 복지지출이 사회적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임
 - 복지지출이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면 복지지출의 증가는 소모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것일 수 있음
- 향후 20-30년 이후의 미래사회는 현재의 활용 가능한 자료로는 불확실한 미래사회의 발전방향을 판단하기에 너무나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지출 수준의 억제에 정책적 관심을 쏟기보다는 복지지출이 어떻게 사용되도록 할 것인가, 어떠한 효과를 낼도록 사용할 것인가가 더욱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임

이태진(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11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